



완전 및 부분 무치악 환자의 보철 수복에 사용된 소수 임플란트에 관한 임상 연구

윤서준*, 한종현, 김선재, 장재승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치과 영역에서 임플란트를 이용한 무치악 환자의 치료는 30년 넘게 발전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의 폭은 매우 넓어졌다. 완전 무치악 환자에서 임플란트를 anchor로 이용한 overdenture의 안정적인 결과는 여러 논문에서 소개되었으며 상악은 4개, 하악은 2개의 임플란트를 추천하고 있다. 그러나 host 조건, 환자의 경제적 사정 및 임플란트 디자인의 개선으로 이전 protocol 보다 적은 수의 임플란트 사용은 증례에 따라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본원에서 식립한 소수 임플란트를 이용한 완전 및 부분 가철성 의치에 관한 수복 증례를 정리하여 과거 protocol에 따른 치료 예후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상악 완전 무치악의 경우 2개를 이용해 수복한 임플란트 6개, 하악 완전 무치악의 경우 1개를 이용해 수복한 임플란트 2개, 부분무치악에서 후방 유리단에 식립한 임플란트 17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상악 완전 무치악의 경우 4개를 이용한 수복과 하악 완전 무치악의 경우 2개를 이용해 수복한 임플란트가 비교 평가되었다. 평균 follow-up 기간은 2년이었으며, bone loss 측정,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 반응, 환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성공여부를 평가하였다.

상악 완전 무치악의 경우 4개를 이용한 피개의치와 2개를 이용한 피개의치의 골흡수량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연조직 반응도 양호하였다. 하악에 1개를 이용한 피개의치의 경우도 3개를 이용한 피개의치의 골흡수량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양호한 연조직 반응과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다만 골흡수량은 임플란트 성공 범주 내에서 시스템의 디자인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부분무치악에서 후방 유리단에 식립된 임플란트의 골흡수량도 다른 임플란트의 골흡수량과 비슷하였고, 양호한 연조직 반응과 만족도를 보였다.

모든 case에서 성공적인 범주의 bone loss, 연조직 반응,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부분 무치악의 경우 anchor로 사용된 임플란트는 distal extension removable partial denture에서 보이는 tissue support 문제점을 tooth와 implant support보철물로 전환함으로써 환자의 soreness 감소와 만족도의 증가를 보였다. 이상에서 본 소수 임플란트를 사용한 부분 또는 완전 무치악 환자의 보철 수복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다. 골흡수량의 문제에 있어 시스템별 디자인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향후 다수의 환자 증례를 통한 장기적인 임상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